

Global Market Report 14-019
2014.6.17

변화기의 쿠바, 우리기업 접근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요 약

I. 쿠바 경제모델 개혁 현황 / 1

II. 쿠바와의 교역 환경 / 4

- 1. 쿠바의 교역 현황
- 2.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III. 쿠바 투자 환경 / 10

- 1. 개관
- 2. 신 외국인 투자법 주요내용
- 3. 마리에엘 발전특구
- 4.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 산업

IV. 주요국 대쿠바 정책 / 23

- 1. 미국
- 2. EU
- 3. 중국
- 4. 기타 국가

V. 우리 기업 쿠바시장 접근 전략 / 30

- 1. 성장가능성이 높은 쿠바 시장
- 2.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서의 쿠바
- 3.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서의 쿠바

요 약

- 쿠바는 2011년 라울 카스트로가 제 1 서기직 취임 이후, 쿠바의 경제 모델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개혁안'을 발표하고 자영업 허가를 통한 민간 경제 육성, 중고자동차 및 주택 매매를 통한 자본주의식 소유권 도입을 위해 노력 중
-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쿠바 정부는 매년 7% 이상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 쿠바 경제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코자 2014년 3월 신외국인 투자법을 발표
- 신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조세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며 마리엘 발전특구에 투자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짐. 거의 모든 분야의 투자가 가능(보건, 교육, 군사 제외)하나 쿠바 정부에서는 농림업, 제조업, 관광업, 에너지·광업,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희망
-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차원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EU,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의 변화에 대응하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 중
- 쿠바 시장이 현재 변화기에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쿠바 정부의 우선 육성 분야(의료·바이오 산업, 건설플랜트 산업, 에너지, 관광 등)를 고려하여 국영기업과의 내수시장 공동진출, 유력 중개상과의 협력 개발, 아바나 국제박람회 및 마리엘 특구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인 진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

I. 쿠바 경제모델 개혁 현황

□ 라울 카스트로 체제 출범

- 피델 카스트로는 2008년 2월 집권 49년 만에 국가원수직에서 사임,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의장직 취임
 - 라울 카스트로의 취임은 쿠바 공산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권력 이양
 - 지난 49년간 2인자 역할(국방장관,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수석부의장, 공산당 제2서기)을 수행해 왔고, 2년간 지도자 수업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쿠바 체제의 안정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
- 2009년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주요 장관 및 공기업 사장 등의 요직을 군부 중심으로 기용
 - CIMEX社(최대 유통 공기업) Hector Oroza Busutil 사장 취임
 - SASA社(자동차 정비 공기업) Jose Rodriguez Pinon 사장 취임
 - 피델 카스트로의 심복이자 차세대 유망 정치인 카를로스 라헤(경제총괄 부통령), 펠리페 로께(외교부 장관)를 축출
- 2011년 4월, 14년만의 공산당 전당대회에서(6차), 피델 카스트로가 당 제 1서기직에서 사퇴하고 라울 카스트로가 제 1서기직 취임, 명실상부한 실권자로 부상
 - 라울 카스트로는 취임 직후 “인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기본욕구 충족을 우선시 하겠다”고 발표하고 경제침체, 주택부족, 식량위기, 관료의 무사안일 등 쿠바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개혁조치 발표

□ 2011년 쿠바 경제모델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개혁안 발표

- 쿠바 경제는 정부주도적인 모델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모든 운영이 이루어지며 정치적 리더십에 크게 좌우됨
- 쿠바 경제는 니켈 및 설탕 수출,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니켈 가격 하락 및 사탕수수 재배 농장 폐쇄, 관광산업 성장 둔화 등으로 실업률 급증, 물가 상승, 외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되며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게 됨
 - 미국의 대 쿠바 경제 제재로 인한 교역의 어려움이 쿠바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쿠바 공산당은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경제사회개혁안(Economic Policy Guideline, Lineamiento)”를 의결, 향후 5년 간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발표
 - 동 개혁안은 총 313개의 안건을 통해 55개의 목표를 달성코자 하며 그 방향은 크게 5분야로 정의할 수 있음
 - ① 경제사회발전모델 제시 ② 정부조직 개편 및 역할 개선
 - ③ 쿠바 국민의 삶 개선 ④ 산업분야별 발전 ⑤ 기타
- 동 개혁안의 가장 큰 목표는 과거 정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책임지던 것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임
 - 쿠바는 식량배급,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을 제공하였으나 세수부족, 외화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의 부담이 커지자 점차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영업 육성을 통해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는 인구를 흡수

□ 경제사회개혁안 추진 성과

- 식량배급제 및 정부보조금의 점진적 축소(2011년)
 - 직장 내 배식 폐지 및 축소, 담배보조금 폐지 등

- **자영업자 육성**을 통한 민간 경제부분 생성(2011년)
 - 운수업(택시, 렌트카 등), 주택임대업, 개인 식당, 이발소, 수리공, 청소업 등
 - * 관광과 직결되어 외화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중점
 - 쿠바 자영업자는 2008년 15만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6월 45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쿠바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 효과
 - * 신규 자영업자의 60%가 기존 실업자였으며 영업자별 세금 납부 의무 발생
- **중고자동차 및 주택 매매허용**(2011년)
 - 1959년 혁명 이후 금지되었던 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쿠바식의 소유권 제도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식 소유권을 도입
 - 쿠바 국민의 8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 전망
 - 중장기 적으로 쿠바 정부의 세수 확대 및 부정부패 축소에 기여
 - * 연간 5천대의 승용차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한국산 시장점유율 약 40%)하며 연간 25억 불에 달하는 해외 친인척 송금의 상당부분이 차량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2011년)
 - 라울 카스트로의 실권 장악 후, 국가평의회 내의 감찰기구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며 횡령, 뇌물 수수 등에 대한 강력한 감사 시행
 - 2011년 쿠바 내 외국인 회사 3개사 폐쇄
- **쿠바 내국인 여행비자 철폐**(2013년 1월)
 - '13.1.14을 기준으로 쿠바국민이 출국 시 필요했던 출국비자를 폐지
 - *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쿠바인은 150 쿠바 페소를 지불하고 정부의 승인 허가 필요 (쿠바인의 한 달 월급은 20 쿠바 페소 수준)
- **일반인에 대한 수입차량 구매허가**(2013년 12월)
 - 1962년 엠바고 이후 신차 수입 및 판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영기업이 수입하는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됨
- **신외국인 투자법 발표**(2014년 3월)

II. 쿠바와의 교역 환경

1. 쿠바의 교역현황

□ 개관

- 쿠바의 교역액은 연간 150억불 수준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다만, 국내산업 생산성 악화, 제조업 붕괴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수지는 만성적자를 기록

< 쿠바의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단위: 백만불)

연도	수출	수입	총교역액	무역수지
2009	2,225	8,269	10,494	-6,045
2010	2,566	9,776	12,342	-7,209
2011	3,452	11,534	14,986	-8,082
2012	3,120	11,986	15,106	-8,865
2013	3,027	12,325	15,352	-9,299

* 자료원 : IMF

- 2013년 기준, 쿠바 전체 교역의 미주(북미, 중남미) 55%, 유럽 27%, 아시아 15%, 중동·아프리카·대양주 3% 등으로 이루어짐
 - 특히 정치적 노선이 유사한 베네수엘라, 중국과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45%를 차지하며 베네수엘라와는 원유 및 광물, 중국과는 원유 및 광물, 중가재 및 소비재 거래를 주로 함
 - 한국은 중국,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 3대 교역국이지만 그 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

< 쿠바의 연도 및 국가별 총 교역액 현황 >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명	2012		201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베네수엘라	382	4,588	428	4,612
2	중국	517	1,290	459	1,512
3	스페인	181	1,039	228	1,157
4	캐나다	540	465	484	501
5	브라질	94	625	97	581
6	멕시코	16	426	14	410
7	이탈리아	54	339	36	386
8	미국	-	512	-	394
9	알제리	3	360	3	362
10	프랑스	30	296	21	324

* 자료원: IMF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니켈,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설탕, 광물, 담배, 수산물, 럼주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은 원유, 기계류 및 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임

- 수출상품이 광물, 농산물 및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어 수출 성장 저해 요인이 됨

* 주요 수출품목 중 금속광물의 비중은 60%에 달함

- 반면 원유, 발전기 등 발전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입은 계속 증가 추세

□ 특징

- 쿠바는 정부주도의 경제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산업 혹은 품목별로 수출입 허가를 받은 공기업이 대외교역활동의 주체가 됨
- 쿠바와 거래를 하는 외국기업들은 쿠바대금결제의 특성으로 인해 직 거래가 아닌 제 3자(에이전트)를 통한 거래를 진행

- 쿠바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으로 360일 외상 혹은 720일 외상 거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에이전트 거래를 선호
- 쿠바 정부는 제 3자 거래로 인한 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자 해당 기업과의 직거래를 희망
- 동시에 수출국가 다변화, 수출제품 다양화 등 대외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임

⇒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우리 기업의 쿠바 교역 기회도 증가

□ 한국의 대쿠바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 대 쿠바 수출입>

(단위:U\$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214,322	344,792	48,376	62,737	73,980	74,270	57,839
수입	3,008	4,423	8,455	8,754	29,768	2,172	9,730

* 자료원: KOTIS

- 한국은 '13년 기준 쿠바의 아시아 3대 교역국(중국 70%, 베트남 11%, 한국 5% 등)
 - 한국의 대 쿠바 수출은 '05년도 4천만불 수준이었으나 '06년~'08년 사이 쿠바 정부의 정책 구매품목인 발전기, 에어컨 및 냉장고의 수출로 급증
- 주요 수출품목 : 디젤 엔진 및 발전 관련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H사 설치 발전기에 대한 A/S용 부품
 - 외국인관광객용 소형차량이 주종을 이룸
- 주요 수입품목 : 설탕, 시가, 럼주, 커피 등

2.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 관련 법안 및 내용

-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적성국 교역법, USC 50 Appendix)
-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 쿠바에 대한 엠바고 시작(J.F.Kennedy)
- The 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 of 1963(CACR, 31 CFR 515)
 -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는 동 법안을 근거로 쿠바와 관련된 대금결제에 달러화가 사용 될 경우 이를 규제
 - * 국내 일부 은행에서는 OFAC 제재로 쿠바 관련 대금 결제를 진행하지 않음
- Jackson-Vanik Amendment to the Trade Act of 1974
 - 쿠바의 미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삭제
- Export Administration Act(EAA) of 1979
 -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Cuban Democracy Act(a.k.a Torricelli Act of 1992, 22 U.S.C Chapter 69)
 - 쿠바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무역 금지, 쿠바에 기항(寄港)한 선박은 1백80일간 미국 입항 금지 등
-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Libertad", a.k.a Helms-Burton Act, 22 U.S.C Chapter 69A)
 - 국유화된 미국 소유의 사탕수수 가공 공장, 광산, 통신시설, 호텔, 은행,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경영진, 주주 및 가족들의 미국 입국 금지, 59년 쿠바혁명으로 쿠바에 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억류당한 미국인이나 기업들이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등

- Trade Sanctions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 of 2000
 - 인도적 차원의 미국 식품 및 의약품 판매 일부 허용
- Omnibus Appropriations Act of 2009
 - 오바마 대통령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 오바마 대통령의 대 쿠바 주요정책

- 당선 후, 2009년 4월 17일, 47년 만에 쿠바 제재 완화 정책 발표
 - (쿠바여행허용) 미국→쿠바로 쿠바계 미국인의 여행 횟수 및 기간 철폐
 - (송금제한철폐) USD 3,000까지 휴대 가능, 금융기관 송금허용 등
 - (통신규제완화) 미국의 통신 회사가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규제 완화
- 2010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를 완화방안으로 항공기 운항확대, 페리 취항, 쿠바에서 신용카드 사용 허용 등 제안
- 인도주의적 차원의 제재완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

□ 쿠바 금융 관련 참고사항

- 쿠바정부, 파리클럽과 부채탕감 협상 진행 예정
 - 파리클럽은 2013년 비공개로 쿠바를 방문, 2010년 이후 공개하지 않은 외환보유고 등 재정 상태를 밝히는 조건을 내세움
 - 협상이 진행될 경우 부채의 일부를 탕감하고 일부는 10년 분할 상환, 일부는 국영기업 지분 출자전환 추진 예상
 - 2012년 말 기준, 쿠바는 파리클럽 회원국에 355억 달러의 부채 보유

< 쿠바내 외국은행 현황 >

은행명(국적)	영업내용
BBVA(스페인)	· 1995년 지점 개설. 금융업, Project Financing
BANCO SABADELL (스페인)	· 1995년 지점 개설.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
Havin Bank Ltd. (쿠바)	· 1972년 쿠바자본으로 영국에 개설한 Havana International 은행의 쿠바 지사로 1995년 쿠바 지사 설립 · 예금, 대출 보증, 상업어음 발행 및 국제금융업무
National Bank of Canda (캐나다)	· 1995년 지점 개설. 양국 간의 교역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캐나다 기업 및 투자자에게 컨설팅 제공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 1996년 지점 개설 · 수출입 금융제공, 쿠바 잠재투자자 지원
Fransabank Sal (레바논)	· 1995년 지점 개설 · 쿠바 기업에 금융서비스 제공, 중·단기 Project Financing
Republic Bank Limited (트리니다드 토바고)	· 2002년 지점 개설 · 쿠바내 금융기관에 신용한도 제공, 수출입 금융 제공
기타은행	· BPCE-IOM(프랑스), BANKIA S.A(스페인), SCOTIABANK(캐나다)

Ⅲ. 쿠바 투자 환경

1. 개관

□ 투자유치 현황

- 쿠바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쿠바 외국인 투자의 50% 이상이 EU 자금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밖에 캐나다 및 중남미 국가가 주요 투자국인 것으로 예상
-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에너지, 광업, 관광업에 주로 투자하며 그 뒤로 건설, 경공업, 식품 산업 등에 투자

< 국가별 대 쿠바 투자 현황 >

No.	국가	투자분야
1	스페인	관광, 상공, 시멘트, 광구개발, 상수도
2	캐나다	니켈광산
3	프랑스	럼주 제조
4	스위스	생수 및 음료
5	이스라엘	부동산
6	베네수엘라	정유시설

* 자료원 : 주 쿠바 스페인대사관

- 브라질, 베네수엘라, 쿠바 시장 선점 경쟁
 - 베네수엘라는 2007년 쿠바와 15건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소프트웨어 개발, 광맥탐사 등 총 6개 분야 관련 7개의 합작 기업을 설립
 - 브라질 역시 니켈광산 개발, 항구 건설 등의 분야 진출을 위한 합작 기업을 설립. 쿠바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리엘 경제특구의 경우 브라질에서는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브라질의 대표적 건설기업 ODEBRECH가 시공

□ 투자 유치 정책 방향

- 쿠바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쿠바 경제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코자 함
 - 쿠바 정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배포
 - * 신외국인 투자법이 반영된 포트폴리오는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
- 외국인 투자를 통해 수출 증진과 수입대체화를 이룩하고자 하며 외국 자본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통해 전력발전망을 변화하고자 함
 - 천연자원 채굴, 공공서비스 제공, 생명공학 개발, 도매업 및 관광 부문은 쿠바정부가 과반 지분 차지
- 외투기업의 인력고용은 국영인력과견회사(Employer entity)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임금은 고용기업과 외투기업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노동자는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됨
- 쿠바 시장에서는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음

2. 신 외국인 투자법 주요내용

- ▶ 쿠바 정부는 2014년 3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995년의 외국인투자법(Law 77)을 대체하는 신외국인투자법을 발표

□ 관련법령 별 주요내용

- 발효 예정일 : 2014. 6. 27 ('14.3.29 발표)
- 외국인투자법 Law 118/2014 (의회 통과)
 - 투자 보장, 투자가능분야, 투자 형태, 승인절차, 분쟁해결 방법, 금융 문제, 고용, 조세 등의 투자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룸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ecree 325/2014 (각료회의 발표사항)
 -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각종 진행절차 명문화,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 신설
-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uba) 시행규칙 Resolution 46, 47/2014
 - 외국인 투자자들의 쿠바 내 은행계좌 개설
 - 외국인 투자자의 쿠바 내 이익금 송금 허용
- 대외무역부(MINCEX) 시행규칙 Resolution 128, 129/2014
 -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기술타당성 조사결과 제시를 위한 방법론 수립
- 사회보장노동부(MTSS)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Resolution 16/2014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체제 규정: 임금 협상, 급여 세부 내용, 국영 인력과견회사와의 관계

□ 주요 변경 사항

-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허용** :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도 허용
 - 과거에는 규정상으로만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었으며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아 사업 운영권 보장이 어려웠음
 - 외국거주 쿠바인의 투자 역시 실제적으로 거부 되곤 했음
-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대사업과 소사업으로 구분, 소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45일 내 사업승인
 - * 기존에는 국가평의회 혹은 각료회의에서 승인하였으며 60일 이상 소요
- **조세감면 혜택**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국제경제제휴계약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수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감면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국제경제제휴계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수과세대상수익에 대한 소득세 15%(과거에는 35%)를 사업 초기 8년간 면제
 - 투자를 위한 각종 기계·기기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면제

※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 ①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해결
- ② 합작회사는 쿠바의 국영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 임금은 파견회사에 태환페소(CUC)로 지급하며 파견회사는 노동자에게 불태환 페소(CUP)로 임금 지급

□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의 보장

- 외국인 투자자는 공익 혹은 사회적 이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법적 보호를 보장 받으며 국유화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
- 투자 배당금 혹은 이익의 해외 송금 가능(별도의 세금 혹은 수수료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기관의 승인 이후, 정부나, 협력 단체 혹은 제 3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팔거나 이전 가능

○ 투자가능분야

- 쿠바정부는 보건·건강, 교육, 군사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며 쿠바 정부의 우선투자 희망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 투자 방법

- 직접투자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의 한 부분이
- 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 투자, 혹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 직접투자 사업형태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Joint Venture)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새로운 주식회사(기명주식)를 설립하는 형태로 회사운영은 쿠바의 내국법 규정을 따름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상호합의를 통해 정하며 투자승인서에 명기
-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혹은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외국자본회사**(Totally Foreign Capital company)
 - 투자 전액이 외국인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설립한 경우

- **국제경제제휴계약**(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특정 분야의 국제경제활동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음
 - 활동 분야 : 호텔, 생산 및 서비스 경영,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건설, 농업생산
 - ※ 외국인투자자 : 외국 주소와 외국 자본을 가진 개인 혹은 법인
 - ※ 내국인투자자 : 쿠바 주소를 가진 쿠바 국적의 법인

3. 마리엘 발전특구

□ 발전특구 개요 및 위치

- 마리엘 발전특구(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 ZEDM)는 외국인 투자, 기술 혁신 및 산업 집중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획
 - 총 면적은 465.4km²이며 아바나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져있음
 - 싱가포르의 PSA와 쿠바 국방부 산하의 Almacenes Universales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브라질 최대 건설사인 오데브레시(Odebrecht)가 항만 개발자로 선정
 - 총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달러 규모로 브라질의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차관으로 건설
 - * 마리엘특구 운영에 대한 법령은 2013년 11월 발표
- 마리엘 특구는 북미, 중남미, 카리브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점에 위치
 - 마리엘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180km, 칸쿤에서 210km 거리

< 마리엘 발전 특구 위치 >



* 자료원 :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

□ 현재 운영 상황

- '14.1월 1단계 개발을 마친 상태로 컨테이너 항을 중심으로 운영시작
 - 마리엘 특구는 보존지역, 생태공원, 첨단기술 산업단지, 물류지구, 항만, 농식품가공지구, 수산업 발전지구, 기술단지 등으로 나누어 개발 예정
 - 컨테이너항의 경우 Super-Post-Panamax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으며 현재 1단계에서는 백만 TEU의 물동량을 커버할 수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3백만 TEU로 확대예정
- 중국, 스페인, 브라질 등 5개국이 투자 의사를 밝히고 사업 조율 중임

□ 투자 가능분야 및 담당 기관

-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신약 개발, 제조업, 물류포장산업,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관광업 및 부동산업, 농업 및 식량 산업, 인프라 분야 투자를 환영하며 특히 최첨단 기술, 청정 기술 분야의 투자를 선호
- 마리엘 발전특구 사무소(La Oficina de 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에서는 Single Window 시스템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 투자 프로젝트 접수 및 신고, 각종 인허가 획득 등을 책임지며 투자 계획 접수 후 65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승인 예정

□ 마리엘 경제특구 투자 이점

-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물류 인프라를 확보
-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한 모든 인허가를 원 스톱으로 처리 가능
- 대학과 각종 연구소가 근방에 위치하여 전문영역에서 인정받는 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음
- 세금 감면 혜택 부여

4.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산업

- ▶ 쿠바정부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허용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11개의 투자유치 우선분야를 선정

□ 투자유치 우선분야 및 적용 원칙

○ 농업 및 임업

-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는 광범위한 농업 산업프로젝트 진흥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강도 높은 임업경영 실시
- 담배잎 생산 및 시가 생산은 국가 독점 산업으로 보전
-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며 쿠바 정부는 외투기업에 토지사용권을 허용

○ 식량산업

-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까지 연계되는 전체적인 밸류체인 형성을 목표로 하며 랍스터 수획 및 가공산업은 외국인 투자 불가

○ 설탕산업

- 기존 설비의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함
- 동시에 사탕수수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도 추진
- 생산체인 전체를 관할하는 기업에 우선권 부여 예정

○ 제조업

- 국내 수요 충족 및 수입대체화를 위한 신규 및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철강 기계류, 화학 및 전자 분야 포함

○ 관광업

- 호텔 신규 건설 및 기존 시설물과 관광 인프라 리모델링
- 골프장 건설 및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건설
- 잘 알려진 외국호텔체인과 협력하여 경영과 마케팅을 다양화

- **운수업** : 항만시설, 조선소 내 선박 건조 및 수리, 선박 계약 및 관리, 운항보험, 예비부품 생산 등
- **보건** : 의료서비스 수출 및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 **건설업**
 - 건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 도입, 건설자재 및 관련 부품 생산 증대 추구
 - 인프라 및 산업 기반 건설, 골프 코스 혹은 호텔 등 각종 관광 인프라 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에너지 및 광업**
 - 광업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및 가공, 화석연료의 탐사 및 생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화석연료 발전 프로젝트 추진
- **상업**
 - 자원 확보, 선진 경영기술 도입을 통한 도매사업 발전도모
 - 전략영역 내 외국인 투자는 합작회사 혹은 국제경제제휴계약의 형태로 진행
-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 분야**
 - 완제품 생산 및 제네릭 의약품 원재료 생산
 -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국내 생산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투자 허용

□ 주요 분야별 프로젝트 현황

[신재생에너지]

- 쿠바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1) BOT방식을 통한 IPP 생산 혹은 2) 쿠바 전력조합(UNE, Electirc Union)과의 조인트 벤처로 가능
 - 생산 전력은 UNE에서 전량 구매하여 자체 송배전망을 통해 전송하며 전력 구매 단가는 각 프로젝트별로 경제기술 분야의 사전가능성 조사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으로 산정
- 쿠바 북동쪽은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적합한 수준의 풍량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를 통해 600~650MW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희망
 - 쿠바는 주로 육상 풍력 발전을 시행하며 물류 환경으로 인해 1.5MW용량의 발전기를 사용
 - 현재 중국 및 스페인 기업이 쿠바에 각 51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 중
 - 풍력발전의 경우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이 적합한 투자방법이며 마리엘 특구를 활용 가능

쿠바 풍력에너지 잠재력 분포 지도. 2011



* 자료원 : 쿠바대외무역부



* 자료원 : 쿠바대외무역부

- 사탕수수 부산물, 농림축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을 희망하며 2020년까지 400MW의 설비를 설치할 계획
 - 2020년까지 3,200만 톤의 사탕수수를 가공할 계획(현재 1,500만 톤)
 - 현재 고압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저압보일러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

[석유 및 광업]

- 쿠바는 멕시코 만 유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희망
 - 쿠바는 멕시코 만에 위치한 심해유전을 52개 블록으로 나누어 외국 기업에 탐사를 위해 분양하였으며 중국,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
 - * 인근해역은 45개 블록으로 분류
 - Cupet(쿠바국영석유회사)은 단독 혹은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석유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수행
- 쿠바의 주종 광물은 니켈이며 구리, 납, 아연 등의 광물에 대한 탐사 중
 - 쿠바 정부는 쿠바 중부, Ciego-Camagüey-Tunas 지역, Holguín-Sagua-Baracoa 지역, Sierra Maestra지역에 광물 매장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

[관광업]

- 관광업은 쿠바의 주요 산업이자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아바나 및 주요 해변을 중심으로 발달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골프 코스 개발, 리조트 및 호텔 추가 건설 등이 주요 추진 프로젝트
 - 호텔은 최소 80~120개의 룸을 보유해야 하며 Trinidad, Ancón and Las Caletas(Sancti Spíritus주), Santa Lucía(Camagüey주), Covarrubias(Las Tunas 주), Guardalavaca(Holguín주), Cienfuegos 등이 주요 투자지역임
 - * 2013년 기준, 스페인, 포르투갈, 자메이카, 프랑스, 캐나다 등 17개국의 외국계 호텔 체인과 62개의 호텔 계약 체결(총 31,277룸)

< 쿠바 관광산업 현황 >

- ▶ 쿠바통계청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28만 2734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0,804명이 늘어난 수치
- ▶ 2013년에는 285만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했으며 약 1/3 가량이 캐나다 국적이며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 및 베네수엘라 순
- ▶ 쿠바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쿠바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18억 4백만 달러로 숙박 및 요식업에 집중

IV. 주요국 대쿠바정책

- ▶ 쿠바는 유엔가입국 195개국중 190개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등 외교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 (주요 미수교국 : 미국, 이스라엘, 한국)
- ▶ 145개 외교공관이 쿠바에 주재, 쿠바는 120개국 147개국 공관을 전 세계에 운영. 사회주의 혁명이념의 세계적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봉쇄 및 관타나모 기지 등 주요이슈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1. 미국

□ 미국 내 쿠바사회 형성

- 대부분의 쿠바 이주 인구는 59년 혁명으로 인해 정치적 이주를 택해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
 -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중산층 자본가들의 미국 정치 망명
 - 1980년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건으로 약 12만 5천명 대규모 해상 이주
 - 90년대 이후 구소련 붕괴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
- 쿠바계 이민자는 미국 히스패닉 중 멕시코(64.3%), 푸에르토리코(9.1%)에 이어 세 번째(3.5%) 규모이며 전체 쿠바계의 70%가 플로리다 남부 거주

□ 쿠바 이주민의 정치적 성향

- 쿠바계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플로리다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Swing State)로 쿠바 정책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
 - 미국의 쿠바 엠바고는 쿠바 망명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지속
- * Swing State : 대선 때마다 정책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을 번갈아가며 지지하는 주

- 미국에는 현재 쿠바계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다수가 공화당 소속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쿠바계 주요 정치인 >

 Marco Antonio Rubio	▶ 113대 美 의회 상원의원 - '10년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으로 초선 성공 - 공화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모) - '13.5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하며 공화당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인물 -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Robert "Bob" Menendez	▶ 113대 美 의회 상원의원 - '14.1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 취임 - '06년, '12년 뉴저지 주 상원의원 - 민주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모) - 이민법 개혁안 강경 지지자
 Rafael Edward "Ted" Cruz	▶ 113대 美 의회 상원의원 - '12년 텍사스 주 상원의원으로 초선에 성공 - 공화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친) - 총기 소유 찬성론자 - 오바마케어 폐지 주장 및 섯다운을 강행 의지 표명 * 공화당 내에서 힐러리와 경쟁구도를 펼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주목할 만한 쿠바계 정치인
 Ileana Ros-Lehtinen	▶ 美 의회 하원의원 - '89년부터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으로 재직 - 공화당 소속/쿠바 출생 -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역임('11-12년) - 미국 의회 최초의 쿠바계 의원이며, 최초의 히스패닉 여성의원 - '03년 북한 금융제재 법안 공동발의
 Mario Diaz-Balart	▶ 美 의회 하원의원 - '03년부터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으로 재직 - 공화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모) - '85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향 - 피델 카스트로의 첫 번째 부인인 미르타 디아즈-발라트의 조카

□ 미국 내 대쿠바 경제제재에 대한 입장

- 쿠바 엠바고는 쿠바계 이주민의 강력한 지지로 지속되었으나 최근 미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쿠바 엠바고 철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

1) 카스트로 정권의 공산주의 정책 완화와 각종 개혁 정책 추진

- '14.3 발표된 신외국인 투자법은 쿠바 이민자의 쿠바 투자 허용

2)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의 원유저가공급이 불확실해지며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하고 교역 확대를 통한 외화 확보가 절실해 미국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되고 있음 (미국의 제재 완화 후 '13년 미국의 대쿠바 수출 3.6억불로 급증)

3) 쿠바계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적음

- 미국 내의 각종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미 국무부는 '2013 테러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 쿠바를 이란, 시리아 및 수단과 함께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

- 쿠바는 국제사회에 테러단체로 지정된 스페인 바스크 분리주의단체(ETA)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ETA)을 지원했다는 명목

* '14.1분기 쿠바를 방문한 미국인들의 수는 17만 3,550명으로 이는 지난해 쿠바를 찾은 EU소속 개별 국가들의 방문객보다 많음.

- 미국 상공회의소 도너휴 의장은 2014년 5월 말 상공회의소 이사진들과 함께 쿠바를 방문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대 의견 표명

- 상의는 미 정부의 엠바고 철폐를 지지하며 쿠바가 미국을 위해 안전한 투자처임을 강조하고 마리엘 특구 방문을 방문하기도 함

⇒ 미국 정부는 대 쿠바 경제 제재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포착

2. EU

□ EU의 대 쿠바 제재

- EU는 1996년 쿠바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쿠바와의 관계를 제한***했으며 2003년 반정부 인사 투옥을 계기로 **외교관계 단절(Diplomatic Sanction)**
 - 고위급 정부인사 교류 금지, EU 외교관의 쿠바 내 개최 문화행사 참석 금지 등 경제 제재가 아닌 외교 제재 시행
- * The common position of 2 December 1996 : 쿠바의 다자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장려하며 인권, 쿠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을 추구
- 스페인 주도로 동 제재는 2005년 중단되었고 2008년 철폐
 - 2005년에는 피델 카스트로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으며 2008년 라울 카스트로 정권 수립
 - 외교 제재 철폐는 민주화 이행과 인권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하며 2008년 800만 유로 상당의 원조 시행
- 미국의 쿠바 엠바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반대 의견 표명

□ EU의 대쿠바 정책 변화

- '14.4.30, 쿠바와 EU의 정치협력협정체결을 위한 1차 회담 개최
 - '14.2, EU 외무장관회의는 쿠바와의 정치협력협정 협상을 승인했으며 쿠바 역시 EU의 협상 제안 수용
 - '10년 반정부인사 석방 및 쿠바의 자체적인 개혁 추진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
 - 정치적 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대쿠바 무역 증진 및 투자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EU(네덜란드, 프랑스) 장관 쿠바 방문('14.1, '14.3)

- '14.3, 프랑스 파비우스 외무부 장관은 프랑스 기업들이 쿠바의 에너지, 관광, 식량, 교육 및 문화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14.5, 프랑스 플뢰르 펠랭(한국명 김종숙) 통상관광장관은 2014 쿠바 국제관광박람회('14.5.6~10)에 참석하여 양국의 무역확대를 위한 단기신용 한도 설정, 프랑스기업의 마리엘특구 투자, 쿠바의 의료·바이오 산업에 대한 양국 협력을 제시

* 박람회 기간 중 AirFrance와 Cubana de Aviacion(쿠바 항공) MOU 체결

3. 중국

□ 양국 간 고위급 인사교류 활발

○ '14.4, 중국 왕이 외교부장 쿠바 방문

- 시진핑 주석의 6월 쿠바 방문을 준비하기 위함이며 양자 관계와 공동의 이익에 관한 협력을 증진키로 함

○ 최근 고위급 인사교류

- 2011년 시진핑 당시 부주석, 쿠바 방문 라울 카스트로 면담
- 2013년 쿠바의 미겔 디아스 까넬 국가평의회 부의장이 중국방문

□ 중국-쿠바 경제·민간 교류

○ 중국은 쿠바의 2번째 교역 파트너이며 쿠바 니켈의 가장 큰 수입 국가

○ 대쿠바 투자에도 활발히 참가

- '14.2, 쿠바 ASPORT(Port industry Group)사와 중국 CHEC(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Ltd)는 산티아고항 다목적 터미널 건설협약 체결

- 쿠바 관광 중국인 급증
 - '13년 22,000여명의 중국인이 쿠바를 방문(전년대비 18% 증가)
 -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상당수로 쿠바는 폐암, 당뇨, 뇌졸중 치료 등으로 유명
 - 2013년부터 중국 은련카드를 통해 쿠바 현지에서 현금인출 가능

4. 기타 국가

□ 국제사회 쿠바 켜안기

- '14.1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회의, '아바나 선언' 채택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 중남미 33개국 정상들이 모인 회담에서 미국의 쿠바 엠바고 철폐를 요청
- '13년 UN 총회에서는 미국의 쿠바 금수조치 규탄 결의안이 22년째 채택
 - 결의안은 찬성 18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통과(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

□ 기타 미주지역

- 중남미 국가들과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기초로 우호협력 관계이나 민주화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내 경제공동체 활동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구에 국한 (OAS 회원자격 정지, IDB, 미주정상회의, FTAA에서 배제)
- 멕시코 정부는 2014년 5월 쿠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무역투자진흥기관인 ProMexico의 사무소를 개소하고 기업인 60여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며 쿠바 투자 의지 표명
 - * ProMexico는 브라질의 APEX, 한국의 KOTRA에 이은 쿠바에 사무소를 개설한 세 번째 무역투자진흥기관임

- 캐나다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임
 - 캐나다는 쿠바의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이기도 함

- 쿠바는 중미 및 카리브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 원조 시행
 - 특히 카리브 도서국들과의 관계가 공고하며 '96년 카리브 도서국들은 Helms-Burton법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과 쿠바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아바나에 파견

- PetroCaribe 협약을 근거로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저가에 원유를 공급 받고 있으며 이는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 쿠바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의료진 및 교사를 베네수엘라에 파견
 - 베네수엘라는 경제위기에 빠져 있어 마두로 정권에서 PetroCaribe 협약에 수정을 가할 경우 쿠바는 즉시 에너지 부족국가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

V. 우리 기업 쿠바시장 접근 전략

1. 성장가능성이 높은 쿠바 시장

□ 교역 확대 잠재력이 높은 시장

-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2013년 기준 6,700만 불에 불과하며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한국 기업에게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해 쿠바는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없는 거의 유일한 시장임
 - 2012년부터 쿠바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정부 뿐 아니라 일반 쿠바인들 사이에도 한국과 한국 기업,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쿠바 내수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일반 쿠바인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나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을 보며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싶어 함
- * 아가씨를 부탁해, 내조의 여왕, 시티헌터, 개인의 취향, 꽃보다 남자 등 다수의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국영기업과 내수시장 공동진출

- 쿠바 정부의 자영업자 육성 정책으로 많은 인구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대신 자영업을 선택
- 또한 쿠바 정부의 부분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향후 쿠바의 소비시장 확대가 기대됨
- 쿠바에는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가진 국영기업이 약 200여개 존재
 - 식품부, 대외무역부, 국방부 등 각 부처별로 산하에 관련 공기업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벤더 등록을 통해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 쿠바 국영기업과의 거래는 대금결제 부분에 있어 L/C 대금 결제 애로 혹은 1년 외상거래 등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국가 전체가 필요한 물량을 해당 국영 기업에서만 취급하기에 주문 물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수출대금 미결제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 유력 중개상과의 협력 시스템 개발

- 쿠바 정부는 중개상의 마진으로 수출가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의 직거래를 희망하지만 대금 결제 문제 등으로 인해 처음부터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현재 쿠바 내에는 53개국의 634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어 이들을 중개상으로 활용하는 쿠바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역사적, 경제적으로 큰 교류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192개사) 기업이 제일 많이 진출해 있으며 중남미 중계무역의 강자 파나마(89개사) 국적 기업도 다수 활동 중
 - 그 외에도 이태리(40개사), 캐나다(40개사), 멕시코(31개사), 중국(29개사), 프랑스(19개사), 독일(17개사)등이 영업 중임

□ 아바나 국제 박람회 활용

- 매년 11월 첫 주 개최되는 아바나 국제박람회에는 쿠바의 모든 기업이 방문하는 쿠바를 대표하는 전시회로 쿠바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기 희망하는 모든 기업들이 참가
 - 2013년에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한국 등 65개국 1400개 외국 기업이 참가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 동 전시회는 쿠바 바이어 뿐 아니라 중남미 각국의 바이어들도 모두 참가하는 중남미 대표 전시회이기도 함
- 쿠바의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열악한 통신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혹은 이메일을 통한 업무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며 중앙 정부에 각종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일반적인 제품 마케팅 및 홍보가 불가
- 또한 쿠바 국영기업들은 공개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네트워킹 구축이 필수적이며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파트너십 유지가 필요함
 - 아바나 국박은 쿠바에 있어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동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 쿠바 기업들은 큰 신뢰를 갖게됨
- 아바나 국제 박람회에는 쿠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참가하는 전시회로 우리 기업들도 아바나 국제 박람회를 신규사업 개발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관계 증진의 장으로 삼아야 할 것임

< 2014년 아바나 국제 박람회 개요 >

- ▶ 시기/장소 : 2014.11.2-8, 쿠바 아바나 ExpoCuba (32회 째 개최)
- ▶ 참가규모 : 18,604 s/m 65개국 3,000개 기업
- ▶ 전시품목 : 종합
- ▶ 한국관 규모 : 12번 홀 727 s/m, 15개 기업 모집 예정

□ 교역 증대 기대 분야

- 쿠바 정부의 중고자동차 매매, 수입자동차 거래 제한 폐지 등으로 향후 자동차 및 부품 거래 활성화가 전망되며 특히 자영업 허가 업종의 하나인 관광산업을 위한 렌트카 시장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쿠바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호텔 및 리조트 건설로 호텔용 가전(냉장고, 에어컨, TV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로 가정용 가전의 경우도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음
- 장기화 된 경제제재로 인해 국내 인프라 및 산업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며 경제성장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시급. 특히 쿠바의 주요 수출산업인 광업 및 에너지 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수요 증가 가능
- 쿠바의 전력난 타개를 위한 발전기 및 부품,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비료, 노후화된 산업시설 재정비를 위한 각종 기계류 및 부품 등도 수출 유망 제품임
-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장신구 등 여성을 겨냥한 소비재도 수출 유망제품으로 꼽을 수 있음

2.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서의 쿠바

□ 마리엘 특구의 전략적 활용 : 물류 및 제조기지

① 물류기지

- 쿠바는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 카리브 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16세기 이후 스페인, 영국, 미국은 쿠바를 점령하기 위해 서로 경쟁
 - 스페인 식민 시대에는 해군기지로 활용되었으며 독립 이후에는 관타나모 (Guantánamo)에 미국의 해군기지 운영
- 최근에는 북미시장에의 접근성,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의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쿠바에서 미국 마이애미까지의 거리는 약 370km에 불과하며 중남미 물류, 교통 허브로서도 충분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
- 마리엘 특구는 파나마 운하 확장과 더불어 북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을 아우르는 물류허브로 활용 가능함
 - 마리엘 특구는 현재 1단계 개발을 마치고 부두길이 700미터, 1백만 TEU 규모의 컨테이너 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 개발이 끝나는 2022년에는 2.1km의 부두에 3백만TEU 규모로 확대 예정
- 마리엘 특구는 자체 컨테이너항 이외에도 아바나-피나르 델 리오(Pinar del Rio, 쿠바의 서남부 도시)고속도로, 아바나-마리엘을 연결하는 판아메리카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철도교통 인프라, 항공 인프라(아바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도 보유하고 있어 쿠바 국내외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② 제조기지

- 마리에엘 특구는 쿠바 내의 다른 지역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제조기지로서의 장점을 보유
 - 물류 인프라 외에도 상하수도, 안정적인 전력망, 광통신망을 보유
- 쿠바는 정부의 무료 교육 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다른 지역보다 수준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전 국민의 9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문맹률은 1%
 - 과학정보통신 전문대에서 매년 수준급의 기술자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이들 졸업생을 대상으로 캐나다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 ALADI, ALBA 등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중남미 진출

- 쿠바는 중남미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에 가입해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회원국에 수출 할 경우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회원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쿠바
- 중미·카리브지역은 서로 유사한 기후, 생활습관, 경제발전정도를 가지고 있어 **중미·카리브형 제품**을 개발 하여 해당지역을 공략 가능
 - * 중미·카리브지역은 멕시코, 남미지역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격차가 있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
- 쿠바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중남미의 좌파국가들과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를 결성하고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어 쿠바 성공사례를 레퍼런스 삼아 다른 중남미 국가에 진출 할 수 있음
 - * 회원국 :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안티구아 바부다, 에콰도르, 세인트 빈세트 그레나딘, 도미니카 ('09년 온두라스의 쿠데타 이후 탈퇴)

3.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서의 쿠바

- ▶ 한-쿠바 양국이 지속가능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쿠바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
- ▶ 식량 및 에너지 등 생존에 필수적인 산업, 의료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국가의 정책 산업, 외화 수입원이 되는 산업 등

□ 의료 · 바이오 산업

- 쿠바는 1962년부터 의료, 바이오 산업을 정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많은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현재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당뇨, 항암(폐암, 자궁, 결장, 전립선),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있어 강점 보유
 - 항 바이러스 단백질(Interferon), B형 뇌막염 백신, 당뇨족궤양(Heberprot-P) 치료제 등은 전 세계에서 쿠바를 비롯한 소수 국가만 생산 가능
 - 또한 나노 산업 역시 쿠바의 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지정되어 의료 ·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나노 기술을 접목하고 있음
- 쿠바는 2011년 기존의 의료 · 바이오산업 분야의 38개 기업 및 연구소를 통합해 BioCubaFarma를 설립하여 쿠바의 의료 · 바이오 연구,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의약품 생산을 총괄하고 있음
 - BioCubaFarma는 쿠바의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치료/예방 목적의 백신, 진료 및 의료 기기를 생산하며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도 병행
 - * BioCubaFarma의 설립은 2011년 발표된 쿠바의 경제사회 개혁안의 일환으로 수입 대체화, 첨단기술 제품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함
- 쿠바에서 생산된 의료 · 바이오 제품은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13~2017년에는 약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의료 분야의 전문인력을 베네수엘라, 브라질, 중국 등 우호국가에 파견하여 기술 이전에도 힘쓰고 있음
 - 의료인 수출은 쿠바의 주요 외화 소득원으로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수출하는 원유, 브라질 정부에서 제공한 마리엘 특구 건설을 위한 차관 등을 갚아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제약 분야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 쿠바와의 전략적 제휴가 가능
 - 인력 교류 및 기술 교류, 쿠바 내에서의 생산 협력 등의 접촉 창구는 BioCubaFarma로 정해져 있어 보다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
 - 다만, 의료 기기의 단순 수출은 MediCuba, GCate 등 보건부 산하의 수입공기업을 접촉해야 함

□ 건설플랜트분야

- 쿠바는 마리엘특구 건설과 같은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마리엘 특구 1단계 개발은 브라질 개발은행(BNDES)의 차관으로 Odebrech가 완공하였으며 2022년 까지의 2단계 개발이 계획 중임
- 쿠바정부는 2008년부터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아바나시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4억불이 소요, 쿠바 전체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는 16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교통시스템, 항만 시설 및 통신 분야는 중국의 자금 지원으로 개선 작업 진행 중(총 지원액은 15.6억 달러 수준)
- 쿠바 정부의 사회경제개혁안의 추진과 함께 향후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건자재 수요가 동반 성장 예상

□ 신규 에너지원 발굴 : 석유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 쿠바는 PetroCaribe 협의체에 의거 베네수엘라에서 저리에 공급받는 원유를 주 에너지 원으로 활용
 -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일 평균 10만 배럴 가량 수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을 수출하는 일종의 바터 교역을 하고 있음
 - * 베네수엘라는 석유 1 배럴당 가격이 100불 이상일 경우, 총 유가의 50%를 25년간 외상으로 제공(배럴당 가격이 50-99불일 경우 40%, 25년 조건이며 40-49불: 30%, 25년, 40불 미만 17년간 외상 제공)
- PetroCaribe 협의체의 퍼주기식 원유 제공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어 강력한 카리스마로 PetroCaribe 협의체를 이끌던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후, 마두로 정권에서 동 협의체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대두. 쿠바는 이에 자체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심해유전 개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등을 추진
- 쿠바의 심해유전은 멕시코만에 위치하며 1977년 멕시코, 미국과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심해유전의 경우 200억 배럴, 연근해 유전의 경우 400만 배럴 정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전체 유전을 52개 광구로 나누어 분양하고 있으며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분양받아 탐사작업 시행 중
 - * 멕시코, 미국은 쿠바의 멕시코만 심해유전 매장량이 40~70억 배럴일 것으로 추정
- 쿠바의 유전 개발은 7% 정도만 진행되었으며 쿠바 정부는 이를 17~20% 정도로 높이는 한편, 기존 유전의 효율화 작업, 정유설비 확충 등을 희망
 - 석유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도 장려하고 있으며 마리엘 특구에는 석유산업 투자자들을 위한 구역도 별도 지정
- 쿠바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며 쿠바 정부는 한국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

□ 관광산업

- 쿠바는 연중 온화한 기후, 해변, 식민지 건축물, 쿠바의 독특한 문화 등으로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외화수익은 쿠바 정부의 주 외화소득원으로 쿠바의 경제개혁 및 각종 정책은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있음
 - 쿠바는 바라데로(Varadero), 산타 루시아(Santa Lucia), 과르다라바까(Gudadalavaca), 까요 산타 마리아(Cayo Santa Maria) 등 8개의 해변휴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많은 해변을 자랑함
 - 아바나 구도심과 성벽, 비냐레스(Viñales) 계곡, 씨엔푸에고스(Cienfuegos), 까마웨이(Camagüey) 역사지구, 그란마(Granma) 등 9개 지역은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 식민도시, 해변 휴양지 등의 전통적인 관광이 쿠바 관광산업의 핵심이나 최근 들어 의료관광, 생태관광 등도 각광받고 있음
 - 특히 의료관광의 경우, “ServiMed”라고 하는 전문 기업을 설립하여 건강 검진, 재활훈련,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학과, 피부과와 관련된 진료를 제공하며 노인전문센터도 운영
 - 최근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쿠바를 방문하는 브라질, 중국, 베네수엘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축구선수 마라도나, 차베스 대통령(베네수엘라), 코레아 대통령(에콰도르) 등 유명 인사들도 쿠바에서 치료를 받음
 - 쿠바는 앞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희망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여행지를 섭렵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관광지를 찾고 있어 이들을 겨냥한 현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필요
- * 한국인 쿠바 관광객은 아직 연간 5천명 수준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2014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경제제재 완화대비, 對이란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4.1
14-002	2014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
14-003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1편 -	2014.3
14-004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2편 -	2014.3
14-005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3편 -	2014.3
14-006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성과 분석	2014.3
14-007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3
14-008	2014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3
14-009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2014.4
14-010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1	2014.4
14-011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2	2014.4
14-012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3	2014.4
14-013	한-터키 FTA 1주년 효과분석 및 시사점	2014.4
14-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2014.4
14-015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4.5
14-016	태국 정정불안에 따른 영향 및 전망	2014.5
14-017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진출동향과 시사점	2014.6
14-018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14.6
14-019	변화기의 쿠바, 우리기업 접근전략	2014.6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중국을 읽는 50가지 키워드	2014.1
14-002	후베이성 자동차부품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2014.2
14-003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2014 중국 경제 전망	2014.2
14-00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4.3
14-005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분야별·업종별 영향과 우리의 대응	2014.4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3	2013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4.2
14-004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4.2
14-005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환경분야 Q&A	2014.4
14-006	2014 중국 개정 상표법 신규대조표	2014.4
14-008	20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4.5
14-009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3	2014.5
14-010	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	2014.5
14-011	SEOUL FOOD 2014 디렉토리 책자	2014.5
14-012	UAE 매립지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5
14-013	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4.5
14-014	2014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4.5
14-015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014.5
14-016	러시아 에너지시스템 시장 현황	2014.5
14-017	201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4.6
14-018	Global Green Hub Korea 2014 결과보고서	2014.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2014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십 포럼	2014.1
14-002	2014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4.1
14-004	3중전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14.1
14-005	개성공단 입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설명회	2014.3
14-006	韓中服務産業優秀企業投資交流會	2014.3
14-007	중국 개혁개방 2.0시대 -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2014.3
14-008	아프리카 중소형 플랜트 협력 포럼	2014.3
14-009	양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설명회	2014.4
14-010	(서울식품전 연계) 한중 식품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설명회	2014.5
14-011	2014 Global Project Plaza	2014.5
14-012	미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2014.5
14-013	쿠바 투자환경 설명회	2014.5



작성자

◆ 신흥시장팀

안성희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4-019

변화기의 쿠바, 우리기업 접근전략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6월 17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